

2016년 11월 22일
제260회 도의회 정례회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 정 연 설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6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목소리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올림픽 준비에서부터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대 후반기 도의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생활자치’에 큰 공감을 표하며 도정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9대 도의회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은 이제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춘천-속초 철도의 해결은 순전히 의원님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민들 전체-도의회 그리고 우리 도정이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은 정파-지역-계층-개인적 이익 모든 것을 넘어서는 대동단결로 올림픽을 최고 수준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강원도의 힘과 강원도민들의 저력을 우리가 온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내년 도정의 최대 과제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이제 444일 남았습니다.

올림픽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담당할 경기장 건설은 거의 모든 난관이 해소되고 마무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경기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착공이 늦어진 개·폐회식장도 내년 9월까지 완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입도로도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 22개 대회가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을 테스트이벤트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참여하셔서 세계인들에게 강원도의 열정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페스티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2월 9일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개최합니다.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핵심적인 콘텐츠입니다. 우리 도민들, 도의 18개 시군, 전국의 17개 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공립 문화예술공연단, 해외의 공연단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이 가지는 약점 중의 하나가 리우 올림픽이나 도쿄-베이징 올림픽처럼 누구나 들어서 아는 대도시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평창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광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예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다른 해 보다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올림픽 준비도 시급합니다. 스마트 관광, 숙박, 교통, 음식, 서비스, 안전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올림픽 국비 예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올림픽 신규예산 1,200억 원을 최근에 국회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개최지역의 경관개선 사업비와 올림픽 상징물 건립 예산 같은 핵심 예산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와 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제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드림시티를 포함한 10개 민자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투자자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총괄해 나갈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림픽 전담조직 확대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이 의원님들께 제출돼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열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철도-도로-항만-항공망이 내년에는 강원도의 이제까지의 모든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크루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올해 초 동해안에 크루즈가 첫 취항하면서 강원 크루즈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에 10만 톤급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10만 톤급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 선사들과 항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차례씩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항에 민자를 유치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 복합여객터미널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2014년 중단된 속초-자르비노-훈춘간 백두산 항로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해항 DBS항로를 활성화하고 컨테이너항로 유치와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올림픽에 대비하여 동해항과 속초항을 무비자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번 달에 개통된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원주를 수도권 출·퇴근 거리로 더욱 가깝게 했습니다.

내년에 개통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는 북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예산을 내년 국비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철원 고속도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또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원주-강릉 고속철도는 교통·물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렌터카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간 철도는 철도도 철도지만 화천-양구-인제-속초의 도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도의 목표입니다.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전문가들을 초빙해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 발전이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여 도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정기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정기편 취항지역도 중국 중심에서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로 확대하겠습니다.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업,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 올림픽 특구사업은 더디고 걸림돌이 많지만 침착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도정의 중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도민들의 풍요로운 살림살이가 도정의 목표입니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는 주식회사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을 기업형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은 단순 생산-가내 수공업적 경제로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특히 FTA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서부터 전통시장-소상공인들-유통 기업들-이전 기업들을 선진 기업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산-가공-디자인-마케팅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이 일관된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고 강원 경제의 성장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경제 주체들을 조직화해서 기업화되지 못한 조직들은 기업화하고 이미 기업화된 조직들은 글로벌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쌀과 강원 한우, 강원 명주, 강원 나물, 강원 꿀, 강원 해삼과 같은 상품들을 명품으로 육성해 수출을 늘리고 동시에 해외에 강원도를 함께 알려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중국본부, 올해는 일본본부를 설립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해외본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네 번째 개최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10개 나라에서 600개 기업이 참가하고 8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습니다. 수출계약 역시 171건 6,579만 불로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질적·양적 도약을 한 번 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국가를 50개 나라로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마케팅으로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조직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안이 의원님들께 제출됐습니다. 중국통상과처럼 통상·수출·마케팅을 전담하는 지역전문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원경제의 기업화와 글로벌화를 이끌어 나갈 단단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강원 경제의 주체들을 묶어세우고 독자적인 역량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강원 경제인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긴밀한 협력으로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강원 경제의 역량을 모아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강원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실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형 실업공제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청·장년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선진국형 모델인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자립 경제-자치 살림의 상징입니다. 다음 달 3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새해 1월부터 유통시키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부와 소비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홍보를 강화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에서 소외돼 있는 두 지역-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에도 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규제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에는 규제 완화 없이는 어떤 개발과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제안한 대로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복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동해안의 군 경계 철책은 국방부와 협의된 15.4km를 내년 3월 까지 철거하고 남은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고한-사북-도계 지역 사업처럼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의 기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이끌어가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칙, 도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다듬고 있습니다. 2025년이 폐특법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와 시-군,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을 활용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먼저 화천군에 소득형 산촌마을과 홍천군에 출·퇴근형 산촌마을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산림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지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1조 원을 넘긴 이래 올해 1조 1,583억 원, 내년에는 1조 2,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의료원은 5개 모두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까지 부담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도 출산율을 1.7명까지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초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248억 원으로 올해에 이어 당초 예산안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자주재원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추진해서 자주재원 1조 1천억 원을 달성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평창올림픽과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의 확정 등으로 지방세와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 올해보다 254억 원이 증가한 4조 3,3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 기금회계로 전환되면서 3,141억 원이 줄어든 3,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2,598억 원이 늘어난 7,124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일자리 확대,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출수요는 올림픽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에 투자할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습니다. 아낄 곳은 아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쓸 데는 과감하게 쓰겠습니다. 빛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4조 3,116억 원)보다 0.6% 늘어난 4조 3,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산업-기업과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교통 분야에 전체 예산의 24.2%인 1조 492억 원
-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환경보호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51.9%인 2조 2,495억 원
-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4.0%인 1,755억 원
- 인건비와 행정운영,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9.9%인 8,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6,895억 원)보다 45.6% 줄어든 3,754억 원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였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기금법 개정으로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54억 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357억 원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3억 원
-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운용 기금은 올해(4,526억 원)보다 57.4% 늘어난 7,124억 원입니다.

- 중소기업육성에 1,321억 원, 비축무연탄관리 979억 원, 남북 교류협력 43억 원을 비롯해 16개 통합관리 기금에 3,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개별기금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9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에 3,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은 우리 강원도가 탄생한 이래 가장 역동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 동시에 가장 큰 열정과 노력을 요구 받는 시기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가 알려지는 시기인 동시에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원도가 가진 모든 역량, 강원도민들의 모든 열정이 함께 모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민들을 모시고 부족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든 예산안이지만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 발전과 올림픽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제260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12. 6)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강 원 도

존경하는 한 금 석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내국세 증가 및 동계올림픽 특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확정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동계올림픽 시설 마무리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하였으나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증가하여 소방안전 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은 증가하였으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기금법 개정으로도 자체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화됨에 따라 금년보다 예산규모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고 동계올림픽 붐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운영 도모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5조 4,537억 원 보다 $\Delta 0.5\%$ ($\Delta 289$ 억 원) 감소한 5조 4,24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조 3,3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54억 원, 도 자체 운용기금은 7,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 등으로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조 365억 원으로 금년 보다 15.9% 증가 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로 소방안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마무리 등으로 국고 보조금이 줄어 금년 보다 $\Delta 1.1\%$ 감소한 3조 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89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74억 원을 각각 반영 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도비 부담 450억 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20.8%인 9,044억 원으로 금년 보다 9.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직·소방직·수습 공무원 인원 증가 및 공무원 호봉 승급 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7.7%인 3조 3,686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 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는 늘어났으나,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마무리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금년 보다 $\Delta 1.6\%$ 감소 되었으며,

내년도 채무상환 규모는 1.5%인 640억 원으로 조기상환과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 등이 감소되어, 금년 657억 원 보다 17억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국적인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성공 개최를 위해

- ◆ 국내외 동계올림픽 홍보, 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G-1 올림픽 페스티벌, 동계올림픽 거리 조성, 응원 서포터즈 육성, 자원봉사자 운영,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1만인 대합창, G-FOOD PLAZA 설치 운영, 강원 아트미디어 공연, 메너드 눈 조각적, 전문예술단체 프로그램 공연,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 이전 전 국민 참여 분위기 마련을 위한 붐 조성·확산 사업에 77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개·폐회식장 건설, 기존경기장 시설 보완, 아이스하키 I 경기장 경관조명 설치,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평창 급수체계 구축, 강릉 빙상경기장 유지 관리 등 동계올림픽 시설 분야에 **3,319억** 원을 투자하여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튼실한 강원경제 구축을 위해

- ◆ 청장년 일자리,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자 유연안정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강원 내일채움공제 지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준 고령자 인턴제,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 반듯한 일자리 창출에 **6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 강원 상품권 유통, 전통시장 현대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지방도 정비,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접경지역 지원 등 도민 생활경제 안정에 **4,4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 ◆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국외본부 구축 운영,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 도내공항 활성화,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 북방경제 중심지 대도약 사업에 **38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0세부터 100세까지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강원도청 반비 어린이집 신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해결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 누리과정 보육료, 경로당 에어컨 보급,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치매 노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야학 강의 공간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작은 영화관 건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 등 체감복지 실현 사업에 **1조 1,57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을 위해

- ◆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농어촌민박 활성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살처분 보상금, 친환경 학교급식, 사과명품 과원조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유기질 비료 공급,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농업신기술 보급 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등 농촌 분야에 **2,8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 강원산나물·산양삼 어울림 한마당, 임산버섯 종균배양 시설 신축, 백두대간 주민지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1,299억** 원을 산림분야에 투자하였으며,
- ◆ 어촌 분야에는 연안정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인공 어촌 시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어촌체험 관광 자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횃집단지 해수공급 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총 **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지원,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지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지방도 방호울타리 개선,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원주천담 건설 등 안전 분야에 **2,10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 ◆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소방분야는 특별회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 관광·문화 위상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 ◆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의료관광 활성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관광지 개발,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지역 축제 육성 지원, 강원FC 운영 지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 등 **1,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전국 제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가꾸기 위해

-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 농어촌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 지원,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등 청정환경 지키기에 **2,35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였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화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754**억 원으로 금년

보다 **477억 원(14.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201억 원) 보다 **153억 원**이 증가한 **354억 원** 규모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원주 기업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에 **34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20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680억 원) 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9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6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노후 소방 차량 보강, 소방헬기 구입 및 임차, 소방서 신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수난구조훈련장 시설 환경개선, **119구급대**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9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5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2,373억 원) 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2,357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2,357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예탁금, 위탁·심사 수수료 등에 2,331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26억 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23억 원) 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등에 8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도 자체 운용 기금으로 전환되어 총 18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1조 1,594억 원으로 금년 (6,324억 원) 보다 5,270억 원(83.3%)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48억 원, 용자금 회수 1,109억 원, 예치금 회수 4,326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이자 수입 73억 원, 기타 수입 4,538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124억 원, 비용자성 사업 1,939억 원, 용자성 사업 1,22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04억 원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말 4,326억 원 보다 64.7% (2,798억 원) 증가한 7,12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과 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 올림픽 붐 조성 및 시설 투자 마무리,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소방 장비 노후화율 제로화, 폐지되는 기금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 보장 등에 중점 투자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에도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과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 금 석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 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편성한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배진환

3. 2017년도 예산의 목 구분

코드	과 목	코드	과 목	코드	과 목
101-01	보수	302-01	민간인 이주보상금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1-02	기타직보수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2-03	민간대행사업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3-01	포상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303-02	성과상여금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	304-01	연금부담금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01-02	공공운영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01-03	행사운영비	304-03	의원상해부담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5-01	배상금등	405-02	도서구입비
201-05	공립대학 운영비	306-01	출연금	406-01	기타자본이전
202-01	국내여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	407-01	국외자본이전
202-02	월액여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1-01	민간융자금
202-03	국외업무여비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01-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202-04	국제화여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1-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307-05	민간위탁금	501-04	시·군·구 융자금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7-06	보험금	502-01	출자금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7-07	연금지급금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7-08	이차보전금	60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7-09	운수업계보조금	601-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01-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204-02	직급보조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01-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204-03	특정업무경비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1-06	차관상환
205-01	의정활동비	308-02	징수교부금	601-07	기타해외채무 상환
205-02	월정수당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602-01	예치금
205-03	의원국내여비	308-04	시·군 조정교부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05-04	의원국외여비	308-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308-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2-01	기금전출금
205-07	의장단협의회체부담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03-01	법정전출금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703-02	비법정전출금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04-01	예탁금
206-01	재료비	308-11	기타부담금	705-01	예수금원금 상환
207-01	연구용역비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5-02	예수금이자 상환
207-02	전산개발비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207-03	시험연구비	310-01	국외경상이전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0-02	국제부담금	706-01	감가상각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706-02	당기순이익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1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706-03	적립금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801-01	일반예비비
301-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311-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801-03	내부유보금
301-07	외빈초청여비	401-01	시설비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1-02	감리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401-03	시설부대비	802-03	과오납금 등
301-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401-04	행사관련시설비	802-04	잡손금
301-11	기타 보상금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